

주제 해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형식주의와 무율법주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형식주의와 무율법주의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여전히 전하다. ‘형식주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마음은 없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형식에만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참 제자의 삶이라 착각하고, 마음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많은 교회에서 주일 성수와 적정 수준의 헌금을 하고, 교회 사역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 성도를 교회의 중직자로 세우곤 한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보이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형식에 집중하는 신앙생활, 이런 모습이 바로 형식주의의 한 단면이다.

‘무율법주의’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신학적 입장이다.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가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무율법주의이다. 에베소서 2장 8-9절은 크리스천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

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은 이렇듯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분명하게 선포한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근거로 이 말씀을 암송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다음 구절인 10절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 구원은 우리를 신앙생활의 종착역에 데려다주는 것이 아니라, 출발역에 서게 한다. 즉 새로운 삶, 선한 일을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종착역이라 여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보장되었으니 자신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 산다. 그러나 삶의 목적을 내 삶의 행복에 맞추어놓을수록, 눈에 보이는 형식에 집중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작아진다.

형식주의와 무율법주의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이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 내 시간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최고의 목표이고 가치인지 지금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다음세대를 향한 목표

우리의 목표는 다음세대를 작은 예수로, 건강한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다음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 단언컨대 교회에 다니는 습관이나 신앙생활의 요령과 방법을 전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만일 다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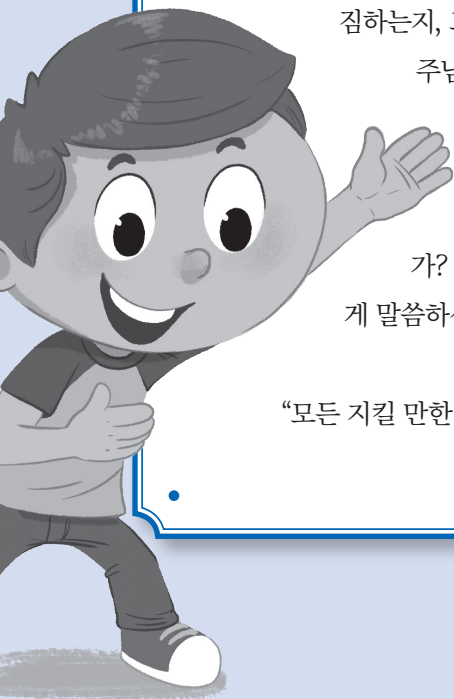
대가 예수님께 책망받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형식과 방법에 능하다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종교인으로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 누구도 다음세대가 그런 종교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역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바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야 한다. 건강한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먼저 세워야 한다. ‘그들의 마음을 세운다’는 것은,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세우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른들의 영향을 받은 우리 아이들 역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간다. 그러다보니 예배는 아이들이 마음은커녕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시간으로 전락해버렸다. 그 결과 한국교회의 다음세대 사역은 크게 축소되었다. 최근 한국의 한 대형 교단의 발표에 의하면, 그 교단에 속한 50퍼센트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다고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과거에 비해 턱없이 낮아지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다음세대의 줄어든 출석수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아이들의 마음이 점점 더 줄어드는 데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지, 매일 삶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지, 그들의 삶을 살펴볼 때면 가슴 한편이 답답해진다. 어쩌면 그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개인적인 교제도 없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해결책

현재 당면한 형식주의와 무율법주의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깨닫고, 느끼고, 결정하는 대로 살아간다. 따라서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멀어진다. 세상은 외형과 형식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 물론 외모를 가꾸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울을 보며 남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이기 위한 노력이 마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을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가꾸기 위해 노력한다면 어떨까? 우리의 내면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 신경 쓰며 겉모습을 가꾸는 데에만 치중한다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책상이나 식탁에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 매 순간 오염되고 더러워진다. 그러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더러워져도 깨끗하게 치우려 노력하지 않을 때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세 명의 왕, 다윗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처럼 자신들을 통치해줄 왕을 달라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요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에 왕을 허락하셨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하나의 나라를 형성한 통일왕국 시대는 120년간 지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세 명의 왕, 즉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을 각각 40년씩 다스렸다. 하지만 통치하는 왕이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 개의 나라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그 모습은 달랐다.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는데, 왜 이렇게 달랐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통치자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마음은 한마디로 ‘무심’(無心)이었다.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다만 사울 자신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 다윗은 어떤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전심’(全心)이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들레헴을 방문하여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했다. 그리고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의 외모에 감탄하던 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인 다윗이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반심’(半心)이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기도 했다. 그러나 나라가 안정되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자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더니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샬롬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인 정략결혼을 통해 샬롬을 채우려 했고, 그 결과 통일왕국은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고 말았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MY ALL TO GOD!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원하신

다.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거나 두렵게 만드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더라도,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져 마음이 더러워지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감으로써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길 바라신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과 상황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좇아 올해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온 마음을 하나님께!”라고 정했다. 그리고 이 진리를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는 다윗에 대해 공부할 것이다.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죄로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나누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세대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윗처럼 한평생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길 기대해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진리를 다음세대에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아야 한다. 다음세대에게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보라.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과한 진리가 마침내 다음세대에게 전달되길 간절히 소원한다. 올 여름, 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한국교회와 교사, 그리고 다음세대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기를 기도한다.

